

美 정치 불확실성 확산... 기관 '코스피 하락', 개미 '상승' 베팅

코스피 2800선 아래로 떨어져 기관 투자자, 인버스 ETF 순매수 증시 변동성 활용 수익률 극대화 개인 투자자, 순매도 '정반대 선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하락에 인버스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가상으로 그린 이미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미국발(發)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코스피가 2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를 변동성 방어 전략으로 선택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순매도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인버스 ETF였다. 기관 투자자가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2525억원, 그 뒤를 이어 KODEX 인버스는 44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정반대

의 선택을 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2661억원을 기록했다. KODEX 인버스도 3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인버스 ETF'는 추종하는 증시나 종목군이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KODEX 인버스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1% 내릴 때 1% 상승을 추구하고,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코스피200 지수가 하락하면 2배가량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의 경우는 이른바 '곱버스(곱하기+인버스)'로 불리기도 한다.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두 배

로 잃을 수도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증시가 요동치면 변동성이 커진 점을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인버스 ETF를 통해 포착됐다. 289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16일부터 4영업일 연속악세를 보이는 중이며 전주 대비 61.54포인트(2.15%) 내린 2795.46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에 베팅을,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는 반등할 것이다'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피격 사건 이후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요동치는 증시를 분석하는 시점이 정 반대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기관 투자자는 곱버스를 매수하고 레버리지를 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는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곱버스를 매도했다. 외국인의 경우는 곱버스를 매수하

기는 했지만 150억원가량만 매수했을 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하락 추세를 보인 코스피지만, 이를 보고 올해 하반기 코스피 추정치를 하향 수정한 증권사는 나오지 않았다. 대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한층 강해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전망 차원에서 NH투자증권은 7월 넷째 주 코스피의 예상범위로 2760~2880선을 제시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강화와 2분기 기업 실적 호조를 꼽았고,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정책 리스크와 미국 주식 시장의 순환매를 꼽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실적발표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돼 순환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대선에 기술주 중심 급락... '은행주' 부상 가능성

美 대선 후보자, 반도체 부정적 기준 은행·부동산 실적 추정치 상향조정 트럼프, 銀 규제완화 의지 등 긍정 요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RNC)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지난 13일 유세 중 발생한 총격으로 숨진 코리 콤폰라토레 소방관의 유니폼을 가리키고 있다. AP/뉴스시

최근 상승랠리를 보이던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한 가운데, 다음 주도로 '은행주'가 거론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7.49포인트(0.93%) 내린 4만287.53에 한 주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39.59포인트(0.71%) 낮아진 5505.00에, 나스닥 지수도 144.28포인트(0.81%) 떨어진 1만7726.94에 종료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반도체 관련 내용을 시사하면서 기술주 차익실현이 시작

된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반도체 무역 규제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아 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두 대선 후보자 모두 반도체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에 탑승하던 빅테크·반도체 종목들의 열기가 꺾이는 모양새다. 고공행진하던 AI 대표주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난주(7월 15~19일) 8.75% 폭락했다. 같은 기간 AMD 주가 역시 16.53% 떨어지면서 반도체주의 약세를 대변했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그간 뚜렷해진 금리 인하 경로와 예상보다 견조

했던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졌던 로테이션장세가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대형기술주의 매도세가 지속됨에 따라 힘을 잃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는 6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종료하기도 했다.

일각에는 다음 주도로 은행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언급됐다. 강대승DB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다른 섹터는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한 달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섹터에 속한 산업군은 은행과 부동산"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실적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 대형 은행에 관

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은행 규제에 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강 연구원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 의지와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기업들의 투자 세액 공제 혜택 연장에 따른 기업의 대출 수요 증가 가능성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일부 대선 캠페인 인사들은 바이든의 사퇴는 시간문제라 평가했고, 베팅 기반의 당선 확률 사이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주자 등록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힘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약 '렉라자' 美 승인 기대감... 신고가 경신

metro 관심종목 유한양행

이달 들어 주가 17.92% 올라 승인 시 하반기 수익률 개선 전망

유한양행이 신약 '렉라자'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경우 하반기 실적 개선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7.92% 상승했다. 일주일 사이 신고가를 여러 번 경신한 모습이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9일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

표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레이저티닙 목표 시장점유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FDA 승인여부 결정이 약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8월내 승인된다면 3분기 미국 출시 마일스톤 유입으로 수익률 개선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가 13만 4000원으로 올랐다.

'렉라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유한양행 협업사인 안센은 지난해 12월 FDA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 요법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미국 FDA 승인 여부가 8월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월 J&J는 렉라자 병용 요법에



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의 모습. /유한양행

대해 FDA로부터 우선심사 대상 승인을 받은 바 있어, 6개월 뒤인 8월 22일경 승인이 가능하나 그보다 앞서 언제든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 기한이 다음 달 22일로 가까워지며 유한양행의 주가가 상승 중"이라며 "경쟁 약물인 타그리스-화학항암제 병용요법의 경우 PDUFA 기한 대비 2개월 먼저 승인된 이력이 있기에 렉라자 또한 PDUFA 기한 전 승인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SK증권, 태국거래소와 녹색금융 협력 논의

태국, 청정에너지 체제 전환 속도

전우중,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키티퐁 우라피파 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녹색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태국 정부는 204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리기로 계획하는 등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증권거래소(SET)는 아세안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세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로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와 ESG 채권 발행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접견에서 태국증권거래소 대표단은 ▲SK증권의 녹색금융 현황 ▲SK증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 현황 ▲국내 금융기관 기후정보공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을 했다. 또한, 최근에 SK증권에 영입된 한정호 글로벌사업부 대표가 SK증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협력 모델을 제시, 경쟁력 있는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전우중대표이사는 "국내 금융기관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국가 위주로 진출하고 있어 태국은 진출 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녹색금융, 디지털화,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태국증권거래소에 SK증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을 아낌없이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키티퐁 이사장은 "SK증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노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